送年회고

값진 結實의 해

邊 浩 成 / 三瑩電子工業(株) 社長

電子機器 部品, 電解 콘덴서를 생산한지 만 15년을 맞이하였던 올해의 우리 회사는 무척 분주했던 한해였읍니다.

1981년 11월을 起點으로 갑자기 감소되었던 海外市場의 주문량은 82年 한해 동안을 계속적인 緊縮經營의 체제를 지속시켜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 總生産能力의 70%를 밑도는 生産計劃을 가지고 1983年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 實情 속에 불투명한 景氣展望은 임직원 모두를 긴장케 하였으며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금년도 目標를, 「使命感을 가지고 일하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자. 硏究하여 目標 달성하자」로 정하였읍니다.

全社的인 經常收支 목표와 部門別 활동 목표를 14 년간 지속적으로 過年度 實績 對 30% 이상의 增加値로서 設定되어 오던 방향을 현실에 맞는 또한 기필코 달성해야만 하는 필수의 目標値로 轉換하였읍니다.

이것은 目標 設定値의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전진을 위한 차분한 준비였으며 각오의 다짐이었읍니다.

자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諸設備의 新設이나 改造는 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잉여 設備 및 部品들은 별도 활용方案을 검토토록 하는 한편 經常收支面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회사의 조직과 분담업무를 전사적으로 검토하며 부서별 T/O를 小數 精銳化함을 목표로 전면 재검토, 조정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계속되는 景氣不況을 대비토록 하였읍니다.

이러한 준비에 힘입어 다행히도 금년 4 월에 들어서자 차츰 海外市場으로부터의 電子産業에 대한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受注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6 월 이후부터는 도저히 정상 稼動 시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즐거운 기쁨을 감당키 어려웠읍니다. 드디어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月産 1억개를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 온 것입니다.

2,000여 임직원 모두는 일치團結하였읍니다. 회사 창립 이후 지난 15年間을 통하여 쌓았던 값진 경험과 기술들을 한데 모아 고급품질 生産을 기반으로 한 증산체제에 돌입하였읍니다.

연초에 별도 관리키로 한 모든 설비와 시설물은 Full 稼動키로 하며 월중 무휴의 비상 체제도 불가피 하게 되었읍니다. 이의 실천을 앞두고 먼저 2,000여 전사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朝會 席上을 통하여 우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중요성을 역설하자 전사원은 이에 대하여 熱과 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여름을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력했던 결실이 헛되지 않아 회사 창립 15年 이래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쁨을 차지하게 되었읍니다.

월 생산량은 1억개를 초과하여 1억 2,000만개 선에 육박하였으며 창사 이래 최고의 利益率을 기록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經營 성적은 사원 개개인별 소득으로 환원되어 금년 6 월부터 9 월까지는 매월 100%씩의 特別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年通算 창립 이래 유래가 없는 고율의 賞與金을 지급할 수도 있었읍니다.

10월 15일은 創立 15週年 행사일로 정하여 紀念式을 갖고 1,200여 有功 사원에게 특별 褒賞을 함은 물론 각종의 다채로운 위안잔치는 이날 하루를 축제분위기 속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숙원이었던 사원 休養施設로서 대지 1,000여평 위에 인공폭포와 희귀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잔잔한 연못과 韓國 고유의 六角亭을 갖춘 「三松公園」이라 命名한 사원 공원의 완공은 그 동안에 땀흘렸던 수고로움도 달랠 수가 있었읍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 서서 돌이켜 보니 올 한 해는 우리 회사로서는 더 없는 기쁨과 감격

의 해, 값진 수고가 結實을 맺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저력과 기반이 어디에서부터였을까 돌이켜본다면 이는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화합과 새마을 정신으로 다져온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뿌리가 내려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外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資金을 原動力으로 하는 企業 資金의 自立化 목표를 지나 온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達成을 위해 노력한 대가이며 不況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增産 시기를 겨냥하여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온 공장 시설과 생산 설비의 확충이 有備無患의 실효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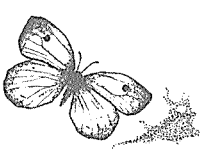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러한 일정한 공식없이 지속되어 왔던 經營 저변에 심어진 씨앗들은 단계적으로 가꾸고 다듬어야 할 기업의 숙명적인 課題들이며 어느 순간도 중단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저무는 癸亥年 속에서 다가오는 2,000年代를 향한 우리 회사의 포부를 정리해 보면서 83年度의 회고를 매듭지어 볼까 합니다.

몇 해 전 外國의 친분이 두터운 顧客으로부터 조그마한 값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인이 평소 企業의 信念으로 하는 글귀를 自筆로 적어 만든 액자였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創意無處 企業不存」이란 글귀가 정성들여 씌어져 있었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時代는 너무도 변화가 다양하며 또한 우리는 人類 文明의 尖端을 걷는 電子産業의 필수 부품인 콘덴서 제조 産業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顧客이 요구하는 주문은 날로 새롭고 發展的인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또 企業의 생명을 永續시키기 위해서는 顧客의 요구에 앞서 새로운 것을 먼저 開發하여 文明 社會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使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使命의 원천은 바로 창의성에서 부터 열릴 수 있는 命題라고 생각합니다. 高級品質, 新製品의 개발, 新技術 연구와 最新設備 도입 및 國産化 등의 向后 2,000年代를 향한 막중한 課題들이 우리 人間의 두뇌로부터 출발하는 創意力에서 發端이 되어 쉼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나갈 때 電子産業의 部品 生産 企業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 되며 國家 社會를 위하고 세계속에 韓國의 국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84年度에는 올해의 값진 경험과 결실들을 더욱 갈고 다듬어서 部品 産業의 중요한 位置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品質向上과 生産性 提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 國家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은 물론 國際 경쟁력을 향상시켜 世界市場의 韓國 商品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보면서 癸亥年 한해를 整理하고자 합니다.